

건강 칼럼

야외 나들이 늘어하는 봄철, 진드기 주의하세요

기상청(청장 박광석)은 25일 올해 벚꽃이 1922년 처음 벚꽃을 관측한 이래 가장 빠르게 개화했다고 발표했다. 서울 기준 작년보다 3일 빠르며 평년보다 17일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국
대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과장

올해의 경우 2월~3월의 평균 기온과 일조시간이 평년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봄꽃축제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었지만 그동안 실내생활에 힘입어 하던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환으로 흔히 '살인진드기'로 알려진 참진드기가 보유한 SFTS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국내에서는 2013년 첫 환자가 발생해 지난해까지 총 1,08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215명이 사망해 사망률이 약 20%에 이르는 위험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피로감, 경련, 의식저하 등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백혈구나 혈소판 감소에 의해 출혈성 소인이 발생하거나 다발성장기부전 등이 동반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중증으로 진행되어 사망할 수 있다.

부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데 잘못 제거할 경우 일부가 피부에 남을 수 있으므로 핀셋 등을 이용해 제거한 뒤 소독을 해야 한다.

피부에서 진드기를 발견하고 고열과 함께 소화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만큼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드기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야외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장옷 착용으로 피부 노출 최소화 ▲풀밭 위에는 돗자리 사용하지 ▲장갑 사용 ▲외출 후 꼼꼼하게 씻기 ▲머리카락, 귀, 팔, 다리 등 진드기가 있는지 확인하기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기고문

예년에 비해 강추위와 눈이 유독 많았던 올해 겨울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다. 안전(安全)이란 사전적 의미로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기초를 지키는 생활속 안전(安全)문화

예전에 비해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아직도 안전에 관한 비용과 투자는 당장 대상물의 이익에 반하는 메를비용 혹은 소모성 비용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다. 사업주가 일정 정도의 영업 규모에 이르고 규모를 이탈하지 않기 위해선 안전에 관한 투자는 이제 필수적인 요소로 더욱 자리 잡아야 한다.



권경열
익산소방서 예방안전팀장

실 등 하드웨어에 대한 점검, 안전의식 확산이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전파다. 그러나 안전의식에 대한 지속적인 자각적인 업데이트는 관계자와 모든 근무자의 몫이 아닌가 싶다.

각 사업장의 대표를 포함한 모든 개인 안전의식으로 무장하고 기본을 지킬 때 우리의 일터는 안전해질 것이다.

화재안전을 대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일상의 현장속에서 안전을 의식하고 기본을 지키는 거다.

혹자는 말한다. 기본을 지키라고 말하는 건 너무 뻘한 이야기가 아니냐고 그렇다. 하지만 그 흔한 말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우리 일터는 화재라는 무서운 사고와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수송빌딩 4층

사설

전북 도내 친일 잔재 청산

전북 도내 일제 잔재 청산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고창 출신 신영욱은 일등 비행사로 이름을 떨쳤다. 해방 후 첫 민간 항공사를 세웠다.

그러나 일본군에 비행기를 납품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반민특위에 체포되기도 했지만 두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다. 1942년 채만식은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친일의 글을 썼다. 친일 작가인 서정주의 호를 딴 고창의 미당 시문학관도 있다. 제헌 국회의원까지 지낸 배현은 친일단체 배영동지회 이리 부회장을 맡았고, 전쟁협력 조직인 조선임전보국단에서 활동했다.

황토현 전봉준 장군의 동상은 형제가 함께 일제에 부역한 김경성의 작품이다. 동학 농민군 토벌에 앞장선 친일파 이두환의 묘, 일제를 찬양했던 김해강의 시비 옆에 세워진 단죄비도 있다.

전주 구도심 약령시 창립비에는 친일파 박기순과 일제 관료들의 이름이 새겨졌다. 친일 행적이 드러난 약령시의 중심인

불박계조 기념비도 있다. 식민 교육의 상징 봉안전을 허물고 새로 지은 전주초등학교 독립기념비는 기단 양쪽에 일제 봉안전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다.

전주고 충혼비는 사각뿔 모양의 일제 총흔비 양식을 따왔다. 자신의 회갑을 기념해 덕진취향정을 세운 박기순은 중추원참의 등을 지냈다. 전북지사를 지낸 아들 박영철까지 대를 이어 부와 명예를 누렸다.

일제 고등문관 시험을 통과해 평생을 고위 검사로 살았던 최대교는 '법조삼현' 중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위안부 강제 징용을 고발하고 독립을 위한 이들을 기소해 징역을 받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북 출신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모두 118명이다. 독립군을 체포하고 고문하는데 부역한 경찰이 41명으로 가장 많고, 관료와 일제 자문기관인 중추원, 사법 등의 순이다. 일제가 남긴 수탈의 흔적들은 1백31곳에 이른다.

국민의 힘 호남인사 비례 우선 배정

국민의힘이 호남 공약에 본격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권에 호남인사 5명을 우선 배정하는 파격적인 당규를 개설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호남 없이는 다음 대선도, 총선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대로 실행된다면 민주당 일명도인 지역 정치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개정 당규의 핵심은 직전 총선 정당 득표율이 15%에 미치지 못한 취약지역에 대한 배려이다. 당선권인 비례 20위 이내의 4분의 1, 그러니까 5명을 이 지역에 우선 추천한다는 것이다.

지난 4.15 총선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전북과 광주, 전남 세 곳 뿐이다.

당규는 지역 대표성 등을 평가해 공천하는 내용을 포함해, 무늬만 지역 출신인 중앙 평방기는 배제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앞으로 이 지역의 지구당을 담당해서 열심히 지역구 활동을 하는

인물들을 택해서 25%를 확보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힘이 당내 일부 반발에도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서진행보, 즉 호남 공약 정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이 선거철에만 반짝 구애를 펼쳤던 것과는 크게 다르다. 국민의힘 호남 동행의원단은 최근 호남 수해 지역을 당 지도부와 함께 직접 누볐다. 현안을 지원하는 데 이어 이번에는 비례대표 쿼터제까지 당규화 했다.

그동안 전라북도의 정치는 경쟁도 없고 책임도 없는 정치였다. 제대로 된 정치의 문화가 생길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에 따라 보다 유능한 지역 인재를 끌어 모으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파격적인 호남 정책이 지역에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여움을 속 시원하게 굽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